

제공일자	2013. 6. 5(수)	담당자	이태열 고령화연구실장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02-3775-9051)	연락처	02-3775-9010 010-8226-6598	총3매

제목 : 국제보험금융센터 신설 및 해외보험금융동향 창간

□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해외네트워크 구축과 해외보험산업 정보 확대 및 축적을 위해 국제보험금융센터를 신설하고 『해외보험금융동향』을 발간하였음.

- 국제보험금융센터는 동향분석실 내 설치되며, 전용식 동향분석실 부실장이 센터장을 맡아 해외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국제기구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 지원 등을 수행
- 『해외보험금융동향』은 해외보험·금융시장 동향,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글로벌 감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계간으로 계속 발간될 예정임.

재정효율성 고려, 복지 수혜 대상자 선별과 차등 지원 필요

□ 『해외보험금융동향』은 테마진단과 글로벌 이슈와 뉴스, 해외보험시장 동향으로 구성되며, 창간호 테마진단으로 이태열 고령화연구실장이 기고한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가 주는 시사점』이 게재됨.

- 오바마케어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롬니케어는 재정 효율성에 역점을 두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 문제를 해결한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국민복지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줌.

- 2012년 대통령에 재선된 오바마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은 아이러니하게도 대선 경쟁자였던 롬니(Romney)가 메사츄세츠 주지사 시절 성공한 건강보험 개혁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형태임.
 - 2006년 당시 주지사였던 롬니는 차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문제를 증세 없이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이른바 롬니케어(Romneycare)를 추진함.
 - 우선 전주민에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복지를 확대 적용하고, 나머지 차상위층에는 보험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
 - 롬니케어는 메사츄세츠주 건강보험 미가입률을 2006년 6.4%에서 2010년 1.9%로 하락시킴으로써 사실상 완전 가입률을 달성함.
 - 공공복지 확대와 보조금 지급에 약 12억달러의 재정소요가 발생했으나 유사 복지재원의 전용, 연방정부의 지원 등을 활용하여 4억 5천만 달러만 추가 부담하여 재정 효율성도 달성
- 롬니케어는 재정효율성의 달성을 위해 수혜 대상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만큼 차등 지원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롬니케어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전면지원, 부분지원, 자력해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음.
 - (전면지원) MassHealth (메사츄세츠주의 Medicaid) 적용대상 저소득층을 확대하여 신규 가입자의 1/4 가량을 흡수함.
 - (부분지원) 연방빈곤기준 150~300%에 해당하는 차상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함으로써 최대한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전체 신규가입자의 약 40%)
 - (자력해결) 미가입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에 의한 단체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체 신규가입자의 1/5을 흡수함.

-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에 있어서 **재정효율성을 중시**해야 하며, 따라서 **세밀한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전용 가능한 관련 예산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증세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음.
-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재정 지출 대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재정부담이 불확실할 경우 꼭 필요한 수혜자를 우선 지원하고 정책효과와 재정소요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